



시민공론화위원회_3차 브리핑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6. 23.(화) 조간용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위 원 장	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간 사	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총 매 수	2매	
사 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

토지소유자 (주)자광 제안내용 직접 듣는다!
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, 다음 달 1일 (주)자광의 제안내용 청취·질의응답 추진키로
- 시나리오 워크숍은 정책·도시전문가·지역경제·시민 4개 그룹 30여 명 참여해 진행 예정
- 워크숍·공론조사 수행기관 '협상에 의한 계약방식'으로 선정하고, 온라인 공론화 공간 마련할 것

-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토지소유자의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직접 듣기로 했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(위원장 이양재)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를 통해 토지소유자 (주)자광(대표 전은수)으로부터 제안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키로 결정했다.
-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공론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(주)자광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듣고, 특히 자본금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심도 있게 진행키로 했다.
- 위원회는 또 시나리오 워크숍의 경우 정책, 도시전문가, 지역경제, 시민 4개 그룹에서 총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확정했다. 그룹별 인원수와 선정방법 등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. 시나리오 워크숍은 특정 사안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해 장·단점을 토론한 후 적합한 대안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공론화 기법이다.
-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'협상에 의한 계약' 방식을 통해 공론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행기관을 선정키로 했다. '협상에 의한 계약'은 입찰공고 시

입찰 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별도 평가위원을 구성, 심사해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.

- 향후 위원회는 전주시 홈페이지(www.jeonju.go.kr)에 시민공론화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가기로 했다. 이 공간의 경우 회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로 운영될 예정이다.
-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장은 “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해 용역관련 과업지시서, 내역서 등을 세심히 검토한 뒤 경험이 풍부한 수행기관과 함께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것”이라며 “공론화 소통 공간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옛 대한방직 부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토지소유자인 (주)자광은 2018년 11월 전주시에 일부 도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㎡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,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, 호텔,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해왔지만 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‘수용불가’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.